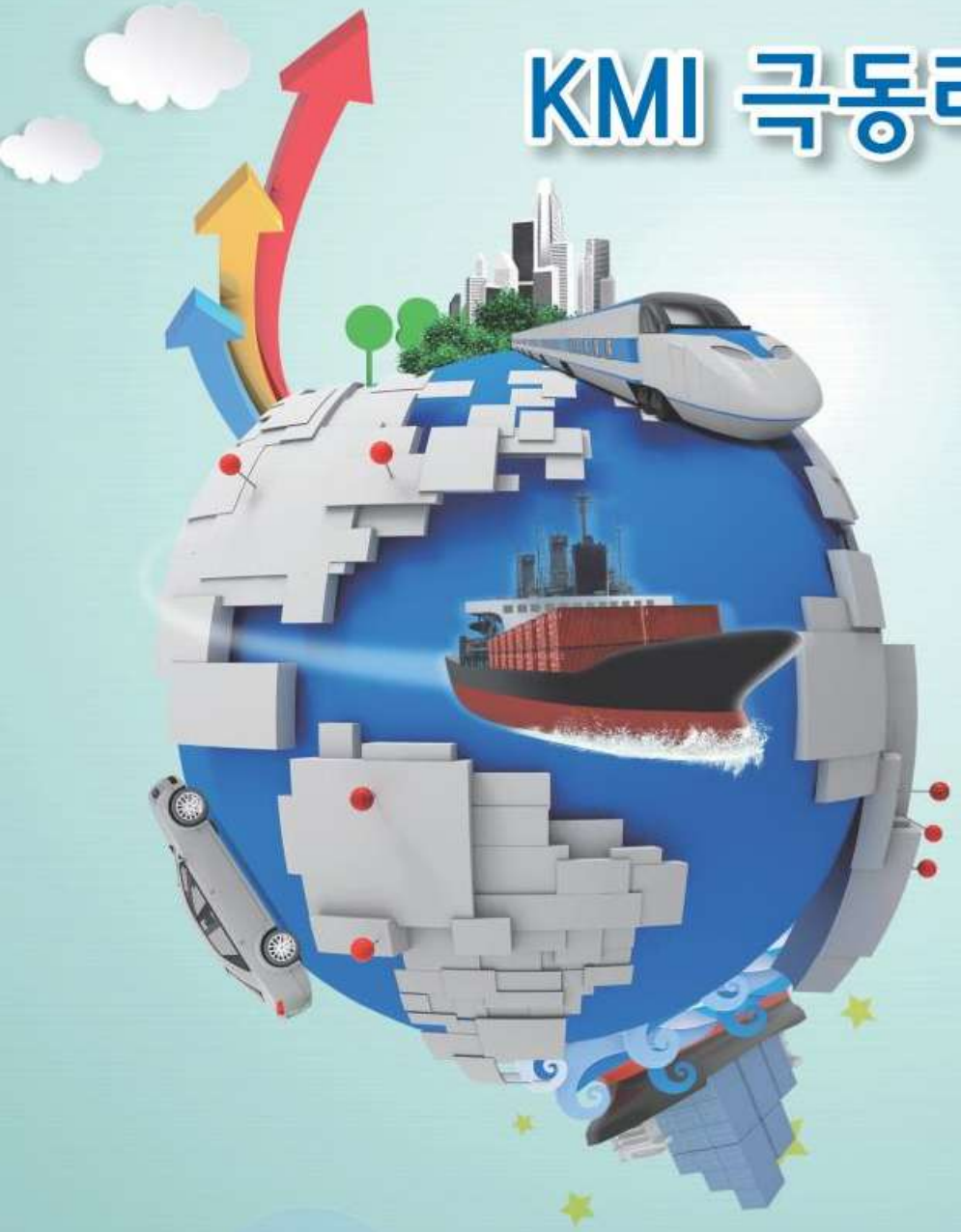
www.kmi.re.kr

제55호·2018년 2월 21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러시아 '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' 추진동향 및 향후 과제-1

1. 최근 동향

○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수산업육성정책은 국가차원의 산업구조개혁 정책과 맥을 같이함
- 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의 수립은 2030러시아발전전략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됨

○ 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에 대한 최근 평가는 2017년 9월 14~15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업포럼(International Fisheries Forum) 논의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감

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전략	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
법적근거	러시아연방법, 국가 전략계획에 대한 법률 (28.06.2016No172-Ф3)
주무부처	러시아 농림부 산하 연방수산청
주요 목적	▶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기반 강화 ▶ 러시아 GDP 성장 기여

자료: 러 연방수산청 http://fish.gov.ru(검색일: 2018년 2월 5일)

- 포럼에 참석했던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세계 수산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의 국가수산업발전 메커니즘 가동이 준비됐다고 밝힘
- 그러면서 정부는 수산과학분야를 포함해 단계별 발전프로그램에 정부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장래 추진계획을 언급함

2017 국제수산업포럼

▶ 작년 9월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업포럼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수산업정책의 기본근간인 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함

자료: 러 조선산업 잡지 www.korabel.ru (검색일: 2018년 2월 5일)

2.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 주요 반응

ㅇ 수산기업, 금융업계, 지방정부 관료 등은 포럼에서 정부가 펼치는 2030수산업종합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함

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의 주요 내용

1. 일반현황
2. 2010~2016 수산업발전 약사
3. 수산업의 당면 과제 및 구조적 문제점
4. 2030 수산업발전전략의 주요 목적
5. 당면과제 해결 및 개선 방향
   (1) 어업 및 양식업을 위한 자원 및 원재료
   (2) 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
   (3) 어로 기어의 개선
   (4) 수산업 가공업의 효율성 증대
   (5) 항만 및 운송물류 인프라 개발
6. 수산업 교육 및 학술정보 제공
7. 수산업에 대한 기능적 모니터링
8. 수산업 금융

9. 전략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
10. 전략의 기본 리스크

자료: 러 연방수산청(http://fish.gov.ru) 자료를 필자번역 후 재구성(검색일: 2018년 2월 6일)

ㅇ 러, 아르한겔스크주지사(관료), 이고르 오를로프
- 대부분 수산기업들은 실질적 수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선건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봄
- 산업발전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절함
- 어류 양식뿐 아니라 해조류 양식에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함
- 아르한겔스크에서 낚시는 단순한 개인 여가활동이란 인식을 넘어 관광분야의 잠재적 성장의 원천이라는 의미도 담겨있음

ㅇ 투자자 및 금융권
- 전 러시아수산기업 내 수출업자연합회 대표인 게르만 즈베레프 씨는 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이 러시아 내수산업의 재평가뿐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
- 특히 총어획량(TAC) 측정을 바탕으로 GDP, 재정수익 등 경제지표로의 평가방법은 새롭게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

ㅇ 러, 도브로플롯(수산기업), 알렉산드르 에프레모프
- 계획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함
- 현재 어류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어서 인력확보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함

ㅇ 러, 유즈노쿠릴스키콤비나트(수산기업), 콘슨탄틴 코로브코프
- 수산업 인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주택 인프라를 지원해야 함
- 100척 이상의 어선건조가 필요함에도 조선소의 기술 및 설계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구비돼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함

ㅇ 이외에도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은 △국내외 시장에서의 러시아 수산제품의 브랜드 보호

및 홍보 문제, △어민에서 최종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 간소화, △민관 파트너쉽 사업구조에서 국가의 역할, △수산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등을 논의함

3. 추진 경과

ㅇ 일랴 쉐스타코프 러시아연방 수산청장은 직면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시급한 과제로 △시장의 장벽, △수산자원확보 경쟁력, △비효율적인 경쟁수단 개선, △어선의 노후화를 지적함

- 러시아 곳곳의 모든 개선요인들을 고려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산업발전프로그램을 준비했고, 이 프로그램에 국가수산업의 진정한 발전가치를 반영해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쉐스타코프 청장이 밝힘
- 무엇보다 국내외 러시아 수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경쟁력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하면서 주요 전략방향을 발표함

국가수산업 육성 세부 전략

추진 방향	주요 내용
해양생명공학 프로젝트	△ 생물자원에서 최종제품까지 가치사슬을 구축하겠으며, 또한 밀가루, 기름, 양식사료, 의약품 및 식이보조원료의 생산성을 증대하겠다고 함
지역 특화 수산자원 차별화 전략	△ 자원기지로서의 성공을 위해 지역의 유망한 해양개체를 활용할 것임 - 극동러 : 정어리, 고등어 - 남부러시아 : 캄사, 청어류 - 남극지역 : 크릴새우
유망 수산업 양식개발	△ 연어 양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입증된 매우 유망한 시장전망을 갖고 있음. 앞으로 연어양식업 중심으로 양식업육성

자료: 러 연방수산청(http://fish.gov.ru) 자료를 필자 번역 후 재구성(검색일: 2018년 2월 6일).

4. 추진 동력

ㅇ 2030수산업종합발전전략에 따른 정책이행은 국가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함

- 러시아 연방수산청 발표에 따르면, 2017-2025년간 수산단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700억 루블의 예산이 필요
-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인력, 자연적, 경제적, 기술적으로 모두 명확한 잠재력이 있고 국가수산업 발전의 도약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더 큼
- 결국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피력함

자료: https://primamedia.ru / http://dvkapital.ru / https://rg.ru / www.primorsky.ru / http://primgazeta.ru / http://www.zonafish.ru(검색일: 2018년 2월 6일).

전명수 현지리포터(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)
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

물류동향

日 국제협력은행, 극동지역 진출기업 지원 위한 회사 설립

ㅇ 일본의 국제협력은행(JBIC,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)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 설립을 발표함

- 동 회사는 일본-러시아 정부 조직이 기금을 공동출자해 설립되며, 세제우대 지역인 경제특구와 자유항에 입주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
- 이는 일본이 북방영토교섭 타진을 위해 제안한 산업진흥 등의 對러시아 협력플랜의 일환으로 평가됨

ㅇ 지난 2월 16일 회사설립 공동출자에 대한 일본의 국제협력은행과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의 외부조직 및 대외경제은행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져 이달 내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

- 동 회사는 극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상담(수속 등), 현지기업과의 제휴 제안, 인허가 수속 조정과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할 예정임

자료: 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KKZO27074370Z10C18A2EAF000/(검색일: 2018년 2월 20일)

최나영환 전문연구원
051-797-4677, chnayoung@kmi.re.kr

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, 12개 기업·110억 루블 신규투자 유치

ㅇ 금년 2월 초,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를 희망한 12개 투자기업이 극동개발부 합작회사(JSC)와 신규 입주 협약을 체결함

- 관계 기관에 따르면 12개 투자기업의 자유항 입주 유치는 11억 루블 이상의 자금 투자와 1,518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

ㅇ 이번 협약으로 블라디보스토그 자유항에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서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

ㅇ 이번 12개 투자기업 중 WenLian-Aquaculture Co는 수산물 양식 및 가공공장을 설립할 예정임

- WenLian-Aquaculture Co는 고효율의 최신 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합창고시설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해주지역 해산물 클러스터를 통해 연간 4만톤의 해산물을 가공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임

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전경

자료:www.investvostok.ru/news/1529/

- 이 밖에 유기농 농축 비료생산기업, 폐기물 처리기업, 일회용품 제조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임

ㅇ 또한, 극동개발부 합작 투자 회사는 27개의 기존 프로젝트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함

- 거주 시설, 인프라, 물류 시설, 선착장 건설 등이 포함된 이 프로젝트에는 95억 루블 투자와 614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됨

ㅇ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더 갈루쉬카(Alexander Galushka)씨는 "우리는 기업을 위해 프로젝트 실행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"고 밝히며, "이는 극동 발전의 주요 관건으로 극동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 건설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"이라고 말함

ㅇ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극동개발부 합작회사(JSC)와의 협약을 통해 현재(2018년 1월 말 기준) 454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약 3,785억 루블의 투자액과 37,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음

자료: https://investvostok.ru/en/news/1530/(검색일: 2018년2월 19일 검색).

공영덕 연구원

051-797-4778, ydkong6053@kmi.re.kr

러시아 정부, 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쿼터 확대

ㅇ 러시아 정부는 어선 규모 및 수산물 가공·생산 기업을 늘리기 위해 해양 생물 추출 및 어획 쿼터량을 확대하고자 함
-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산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며 어획 및 추출된 해양 생물을 가공해 어류 및 가공제품을 매년 생산할 수 있음

ㅇ 투자자들은 할당 받은 쿼터와 기타 해양 생물 쿼터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해양 생물자원을 추출 및 어획할 수 있게 됨
- 투자 쿼터량이 증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임
- 산업 또는 연안 어업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해양 생물자원 추출 및 어획 할당과 분배에 관한 법령[1]과 이와 관련한 계약 및 규칙에 관한 법령[2]
- 어업분야 투자 대상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및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장에 대한 법령[3]

ㅇ 매년 러시아 해양 생물자원의 약 80% 이상이 극동지역에서 추출 및 어획되며 그 양은 약 300만 톤에 달함
-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더 갈루쉬카(Alexander Galushka)씨는 극동지역 수산업의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함
- 이에 따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 생물자원의 잠재력을 이용하고 국내 조선업 및 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함

자료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2783/(검색일: 2018년 2월 19일).

김은미 리포터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1) утвержде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 29 мая 2017 года №648
2) утверждены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 25 мая 2017 года №632
3) утверждены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 25 мая 2017 года №633

연해주에 최대 규모의 양어장 건설

ㅇ 연해주에 가리비와 해삼 등의 해양자원 생산을 위해 1만 ㎥의 양어장이 건설됨
- 이번에 건설될 양어장은 연해주 최대 규모이며, 공장형식으로 건설될 예정임
- 본 프로젝트를 위해 약 70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이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6년으로 예상되고 양어장 건설로 인해 약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

ㅇ 프로젝트 스타트업 기업인 '즈베즈다 보스토카(ООО «Звезда Востока»)'사는 파르티잔스크(Partizansk) 수역과 라조프스크(Lazovsk) 지역에서 약 2,000ha의 어장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했으며, 이는 극동지역에 가장 넓은 어장임
- 또한 생산물 가공 및 저장 등에 필요한 공장 건설을 위해 연안지역 약 12 ha 부지를 장기임대할 계획이며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

ㅇ '즈베즈다 보스토카'사는 연간 약 1만 톤의 어패류 및 해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된 제품은 러시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·태평양 국가로 수출할 예정임
- 본 프로젝트는 2018년에 투자 협정을 체결해 2020년경 양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2354/(검색일: 2018년 2월 19일).

김은미 리포터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